

Kodex^{ETF}와 함께 만드는 Viewtiful Week



Executive Summary

- 지난주 9월 비농업 고용 서프라이즈로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은 2회(50bp)로 축소
- 이번주는 9월 CPI의 예상 상회 여부와 중국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 강도에 관심
- 중국 증시는 지표 반등 전까지 변동성 확대 불가피. **이익 개선되는 미국 IT, 헬스케어에 관심**

이런 주엔 무엇을 볼까

미국 9월 고용 호조로
금리 민감도 재상승
가능성

9월 비농업 고용은 전월비 25.4만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15만 명)를 대폭 상회했다. 풀타임 근로자는 전월비 41.4만 명 증가한 반면, 파트타임 근로자는 전월비 (-)9.5만 명 감소하면서 고용의 질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실업률은 4.1%로 7월 고점 형성(4.3%) 후 2개월째 하락했다. 이에 따라,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고조되며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 3회(75bp)에서 2회(50bp)로 축소되었으며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이날(10/4, 금)만 각각 21.6bp, 12.1bp 급등해 3.9%대를 회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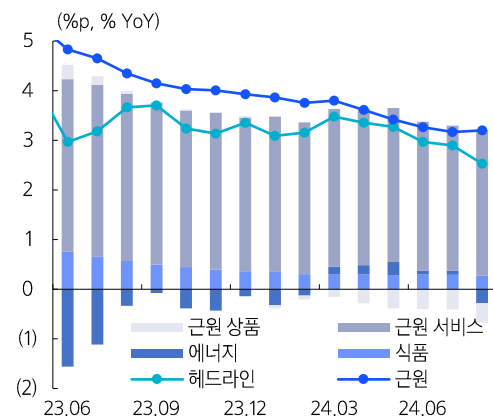
시장 관심은
10일(현지시간)
9월 CPI로 이동

이번 주는 8일(이하 현지시간) 삼성전자 잠정실적, 10일 미국 9월 CPI/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11일 금통위, 13일 중국 9월 물가 등 다수의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으며, 시장은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과 중국의 인플레이션 여부에 주목할 전망이다. 미국의 9월 고용 호조에 이어 9월 CPI도 예상치(헤드라인 2.3%, 근원 3.2% YoY)를 상회할 경우, 금리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중동 불안 여파로 국제유가 가격이 속등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발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그림1].

중국 증시 랠리 지속
여부도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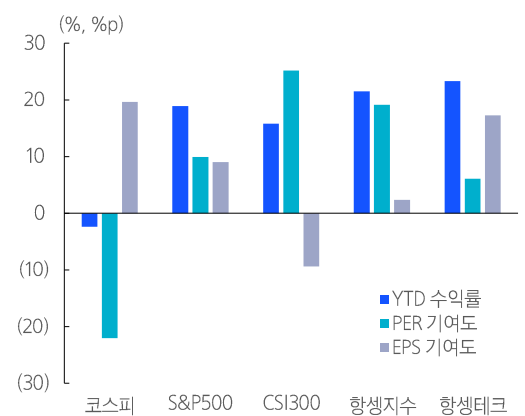
중국을 올해 초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났으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경절을 앞두고 통화, 부동산 정책 그리고 증시 부양책을 포함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국 증시의 누적 수익률을 멀티플(PER)과 이익(EPS)으로 분해해 보면, 중국 증시 상승은 금리 인하에 따른 멀티플 확장에서 기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2]. 국경절 이후 공개될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증시가 상승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림1] CPI: 주요 항목별 기여도



*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그림2] 주요 지수: 올해 누적 수익률 분해



* 주: 연초부터 9월 30일까지 분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Kodex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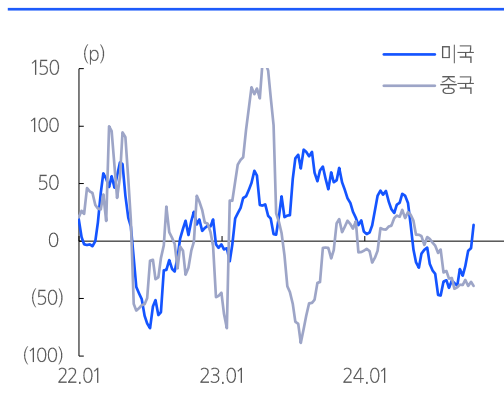
중국은
실물 지표 반등까지
변동성 확대 불가피

미국은 11월 초까지 금리 인하폭 축소, 중동 불안 그리고 대선이라는 다양한 변수가 산적해 있다. 반면 중국은 경기 부양책에 집중한다면 단기트레이딩 관점에서 미국보다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다. 국경절 이후 공개되는 재정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시장 기대 상회 여부가 관심이다. 18일 발표되는 실물지표(부동산)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경기 바닥 통과 기대감은 강화될 수 있다. 단, 경기 부양책이 펀더멘털 개선으로 반영되기까지 최소 1개 분기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물지표 반등 전까지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그림3].

11월이면 해소될
불확실성:
증장기적으로 미국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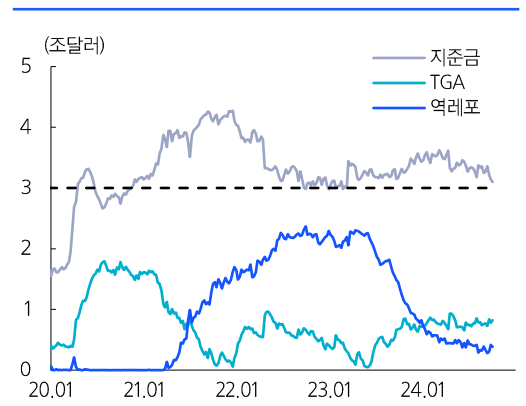
한편 미국은 11월 대통령 선거(5일)와 FOMC(7일)라는 빅 이벤트를 거치면서 증시 불확실성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 주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점도 증시에 긍정적이다. 한편, 연준이 11월 FOMC에서 자산인축(QT) 중단을 선언한다면, 시장 금리 상승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그림4]. 궁극적으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미국 IT와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림3] 경기서프라이즈지수: 미국 vs. 중국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그림4] 기준 3조 달러 근접: QT 중단 가능성↑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Viewtiful week를 위한 삼성 Kodex ETF 3

01 Kodex
차이나CSI300
(종목코드:283580)

중국 시장을 대표하는 대형주 300종목에 투자

- 중국 대표 기업 300여개 종목에 효율적인 분산투자가 가능한 ETF
- 주요 투자 대상 : Kweichow Moutai, CATL, Ping An Insurance 등
- 합성총보수 : 연 0.3562%,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0.3753% 발생, 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02 Kodex
차이나항생테크
(종목코드:372330)

중국 대표 빅테크 30개 종목에 집중 투자

-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거둔 중국 대표 IT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
- 주요 투자 대상 : Meituan, JD.com, Alibaba, Kuaishou, Xiaomi 등
- 합성총보수 : 연 0.2365%,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0.2769% 발생, 위험등급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03 Kodex
미국테크1조달러기업포커스
(종목코드: 491090)

미국테크 BIG3(Microsoft, Apple, Nvidia)에 최대 75% 투자

- AI기술 혁신을 이끄는 '1조달러 클럽' 기업에 투자하는 ETF
- 주요 투자 대상 : Nvidia, Apple, Microsoft, Alphabet, Meta 등 10개 기업
- 총보수 : 연 0.30%, 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나 본 자료의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관련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료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